



2026. 6. 30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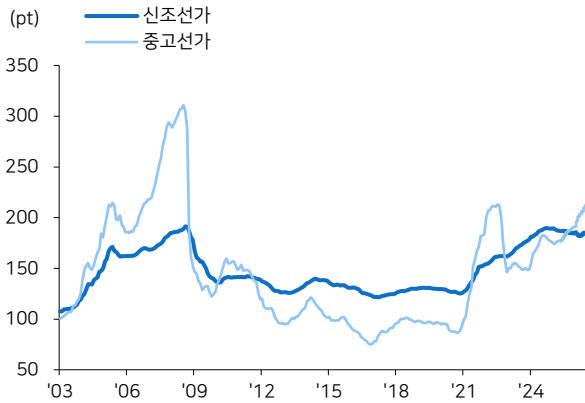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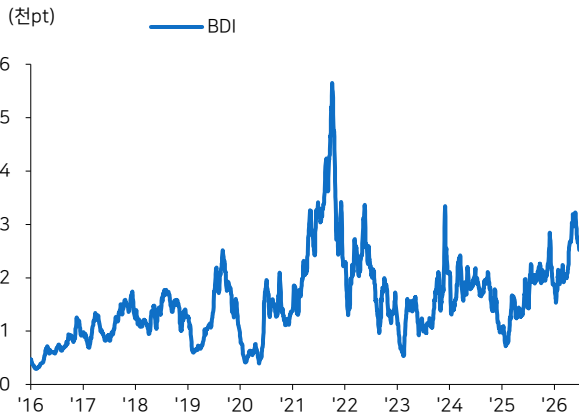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2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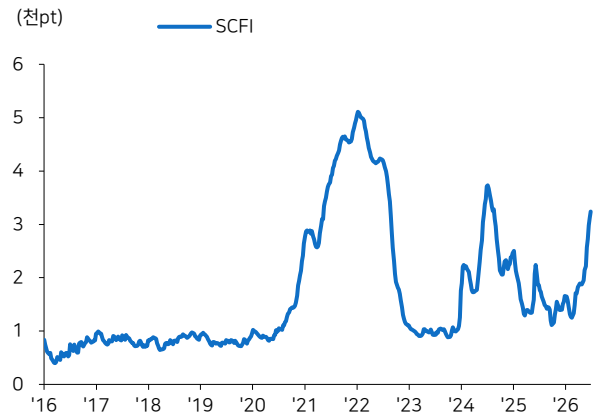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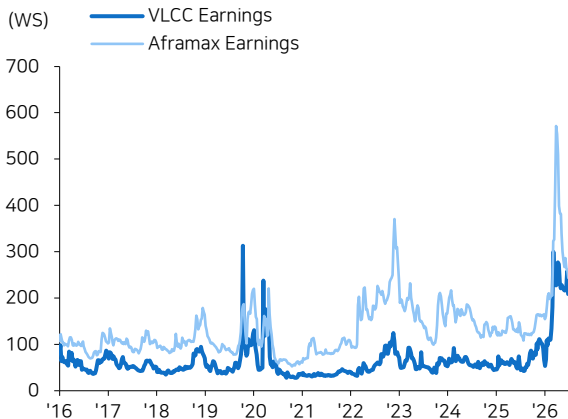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24.0p (-6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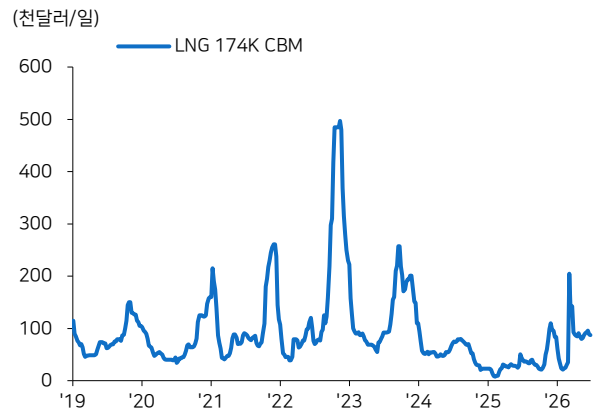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39.6(+118.0 WoW)



VLCC Spot Rate 208.7WS (-49.2p WoW)



LNG Spot 운임 87.5천달러 (-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Will the Germans or South Koreans emerge as Canada’s sub deal winner? (CTV News) <https://zrr.kr/CR1rTX>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함대 도입에 대해 6월 말 이전 결정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는 Carney 총리의 7월 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조정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데이비드 맥퀀티 국방부 장관은 사업의 분할 발주 가능성을 일축하며, 어떤 종류의 함대든 이를 분할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가중된다고, 서로 다른 두 함대를 유지·보수하고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든 더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짐. 한편 캐나다 국방투자청은 잠수함 플랫폼(20%), 유지 보수 계획(50%), 전략적·경제적 협력(15%)의 4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급증 전망...조선·가스업계, '새 먹거리' 부상 (뉴시스) <https://zrr.kr/hkmdSz>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조선과 가스업계가 새로운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됨. 조선업계는 기존 선박용 엔진 기술을 데이터센터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독자 브랜드 엔진을 통해 데이터센터용 엔진을 수주했고 한화엔진 역시 중속 엔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가스업계에서는 SK가스가 LNG와 액화석유가스 겸용 발전소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통해 전력 공급 및 LNG 저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고, E1 또한 기존 발전소 인수 및 추가 건설을 통해 발전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알려짐.

Wärtsilä secures new order to power next wave of AI-driven data center growth in the U.S. (Wärtsilä) <https://zrr.kr/OOBmyc>

Wärtsilä가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전력 공급용 엔진 공급 계약을 Liberty Energy와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신뢰성 높은 현장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Wärtsilä의 천연가스 엔진은 모듈형 설계와 빠른 배치 가능성 덕분에 전력망 지연 리스크를 완화하고 데이터센터의 확장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전해짐. 해당 엔진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AI 기반 데이터센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예정이며, 설비 인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Ships for America Act proposal scaled down ahead of House vote (TradeWinds) <https://zrr.kr/WbL2do>

미국 하원 의원들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Ships for America Act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제출했다고 보도됨. 해당 법안에는 미국 국적 선박 최대 250척으로 구성된 선대 구축, 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중국 연계 선박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조항이 삭제됐으며, 중국산 수입품의 일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다고 전해짐.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업계에 최대 20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조성안은 유지되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제외되고 의회의 매년 예산 배정을 거처도록 변경되어 법안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하원 본회의의 표결과 상원 버전과의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짐.

HD 한국조선해양, LNG 추진선 연료 고압펌프 국산화 성공 (연합뉴스) <https://zrr.kr/gRHhcf>

HD한국조선해양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LNG 추진선 핵심 기자재인 연료공급용 고압펌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됨. 그동안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오던 고압펌프를 프리텍, 성문 등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프랑스 선급 인증까지 획득했으며, 현재 국내외 조선소와 70여 척분 규모의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이번 국산화 성공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지보수 및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자사주 1만주 추가 매입 (조선비즈) <https://zrr.kr/RseUeZ>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이 지난 26일 자사주 1만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취득 가격은 주당 24,310, 총 매입액은 2억4,310만원 규모라고 공시됨. 이번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최 부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4월 초 6만주에서 7만주로 증가했다고 전해짐. 최 부회장은 2023년 3월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